

새벽 정각 이룬 부처님처럼 불자들 수행 열기 뜨거워

2천여 대구 불자 철야정진으로 성도재일 의미 새겨

음력 12월 8일 성도재일은 부처님오신날과 출가제일, 열반제일과 더불어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다. 싯다르타 태자가 6년 간의 고행 끝에 정각을 이루 부처님이 되심을 축하하는 날이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인류에게 직접 전하는 출발점이며, 나아가 누구나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한 날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불자들은 성도재일 기려 법회와 철야 수행정진을 진행한다.

대구 불교계도 철야정진 등 다양한 법회를 통해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구 동화사와 대구 반월당 보현사, 한 마음선원 대구지원 등 대구·경북지역 사찰들은 이날 일제히 성도재일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1월 19일에는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가 주최하는 성도절 기념 연합법회가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렸다.

지난 1981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창립 후 이듬해 1982년부터 시작된 성도절 기념 법회는 아직까지 지속되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연합법회로 손꼽히고 있다. 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대구사원연합회장 경희 스님, 유승민 국회 의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희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성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전 인류에게 직접 전파하는 출발점이고 동시에 누구나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 보인 날”이라며 성도절의 의미를 강조했다.

성문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연기법”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연기법을 바로 알고 행해서 원융화합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대구사원연, 19일 연합법회 봉행 법성도 요약으로 화엄사상 되새겨 소외계층 장학금 등 프로그램 다채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의상 대사의 화엄 법계도를 따라 걸으며 서원을 세우는 법성도 요약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성도절 마다 한해도 그르지 않고 지속해온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의 법성도 요약은 일명 해인도로, 신라 의상스님께서 화엄사상의 요지를 7언 30송 210자로 압축한 도인(圖印)이다.

불교의 심오한 철학과 우주만물의 현상을 가장 고차원적인 이론으로 진리의 세계

를 압축하여 큰 네 칸의 사각형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로왕변을 든 범사스님의 지도에 따라 도는 것을 요약이라고 한다. 자신의 수행완성과 남의 수행을 돕는 것으로 한국불교에서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다.

법요식에 이어 2부 순서로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인 해민 스님의 힐링 콘서트가 진행됐다. 또 대구사원연합회는 이날 법회에서 모범불자 10여 명을 시상하고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1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한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1월 18일 밤 9시부터 19일 새벽 5시까지 대구큰절 옥불보전에서 주지 밀허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불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재일 기념 철야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천수경과 금강경 독경, 사경, 촛불행진, 108배 등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중국 칭따오 분원에서 보낸 영상법문을 통해 “불자라면 누구나 일정한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포교와 정진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①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는 1월 19일 성도재일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성도 요약을 하고있는 모습.

② 장계합장을 한 스님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있다.

성도절 맞이 제언

이제 불기를 불멸 아닌 ‘성도 기원’으로

올해는 불기(佛紀) 2557년이다. 이는 B.C.E. 544년 석가모니 부처님의 반열반에 따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한 안거희수를 계산한 수이다. 때문에 불기는 ‘불멸 기원(佛滅紀元)’의 약자로 보기도 한다.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는 1년 중 약 3개월 간 안거(安居)제도가 있다. 수행을 중요시하는 불교 공동체에서는 문순(Monsoon) 기간 동안의 안거 유무에 따라 법랍(法臘)이 계산된다. 그래서 지금도 법랍을 의미하는 말과 안거를 의미하는 말은 같다.

불기 2557년으로 계산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成道) 기원은 B.C.E. 589년이다. 조계종 종단본 <부처님 생애>에서도 부처님 일생연표에 589년을 성도기원의

해로 표기하고 있다.

1956년은 통일 불기 2500년으로 제정됐다. 세계불교대회(WFB)는 부처님의 반열반 해를 B.C.E. 544년으로 잡고 2500년인 1956년에 맞추었다. 특히 네팔 카투만두에서 불기 2500년을 기념해 1956년 11월 15~21일 제4차 세계불교대회회가 열렸다.

이러한 불기 계산법에 의하면 2011년은 석가모니 부처님 성도(成道) 기원 2,600년이다. 인도와 다른 불교국에서는 2011년부터 성도 기원 2600년을 대대적으로 봉행했다. 2011년 5월 16일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대회장에서 특별 연설을 하기도 했다. 불기와 관련해 한국 불교계 언론에서

불기를 태국 등과 맞추기 위해 1년을 줄이려고 주장해 논란이 인적이 있다.

당시 조계종단에서는 “현재 한국 불기(佛紀)는 중앙중회 최초 결의와 다르며 세

동북아 음력 성도일은 오류 모든 불교국가 날짜 통일해야 성도 기원이 불교 정신 반영

계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의 불기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데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불기 사용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기도 했다.

당시 특위 연구위원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는 1년이 차이이지만 인도, 미얀마 등 세계불교권은 우리와 같은 불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과 관련된 탄생과 출가, 성도, 반열반 등 4대 사건에 대한 날짜와 기원일은 각 국가들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성도일에 대해 동북아 지역에서 음력 12월 8일로 보는 것은 착오임이 밝혀졌다.

모든 불교국은 같은 해와 같은 날짜에 부처님과 관련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고립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다. 불교국 간 사방승



조준호 한국외대 남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가(四方僧伽)로서 긴밀한 연대가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 불교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불교사회에 통일안을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한국 불교계가 연구결

과물을 생산해 세계불교대회(WFB) 등 국제 불교사회에 주요 불교 기념일을 통일하는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세계불교계는 불기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 이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반열반과 안거희수에 산정된 연대기 아닌 부처님의 성도 기준으로 성도 기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앞서 말한 대로 1년 차이라는 몇 개국과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성도 기

원의 불기야말로 불교 본연의 정신에 더 투철한 기념일이라는 이유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인류역사에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서 ‘완전한 경지’인 열반을 성취하여 ‘부처’가 되었다.

우주적인 사건이기에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하였으며 또 또한 주저 없이 그의 완전을 우렁차게 선포하였다.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새로운 존재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개막되었음을, 종(縱)으로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횡(橫)으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존재가 되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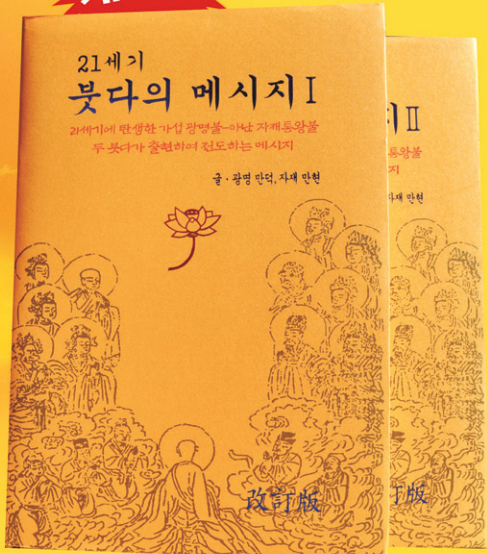
인류의 역사는 석가모니 붓다의 성도로 부터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 사건으로부터, 그 해로부터 인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인류역사는 물론 현재의 불교계는 부처님 성도일을 역사에서 가장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날과 해로 되새겨 볼 수 있게끔 위치시켜야 한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5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9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불과 이룬 대성자의 경천동지할 대사자후!! 우주 탄생과 영혼체의 비밀에 대한 초유의 선언!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세계종교 비교

감수·자재 만현 큰스님
글·법장 김종섭
715쪽 | 값 25,000원

▶ 달라이 라마 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야사대 인류가 읽어야 할 양서!